

실물 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

-1913~14년 애프터눈 드레스(Afternoon Dress)의 설계 및 디자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김문숙외 5명¹⁾

目 次	
I. 서 론	
II. 1910년대 의상	
III. 제작 기획	
IV. 제작 및 실제	
1. 스타일(style)의 분석	
2. 색상과 소재의 분석	
3. 패턴(pattern)과 바느질법의 분석	
4. 장식 기법의 분석	
5. 구조적 기능의 분석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복고풍 스타일의 재등장으로 과거를 동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패션의 현 시점에서 과거 의상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료들의 나열보다 실제 재생 제작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접근 연구함으로써, 단순한 모방이 아닌 패션 재창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과거 의상의 실물 제작을 통한 직접적인 연구와 문헌상의 간접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실물 제작을 위한 과거 의상의 시대는 현대 복식의 특징이 출현하는 1910년대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1910년대 이전 의상의 잔존과 이 시대 패션의 특징을 지닌 과도기적 형태이며,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I, II)」에서 다룬 드레스의 특징과 구별되는 '애프터눈(afternoon)'이라는 용도 차이에 의해 구조나 장

식에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1913~14년 애프터눈 드레스(afternoon dress)」를 선정하였다. (그림 1 참조)



(그림 1)

1) 지도교수 : 김문숙

연구원 : 이서희, 오현남, 임지연, 장지선, 조정아

1913~14년의 애프터눈 드레스는 과거의 S자형 실루엣(silhouette)과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고, 튜닉 스타일(tunic style), 기모노 스타일(kimono style), 팩그탑 스커트(peg-top skirt) 형태와 얇은 소재인 쉬폰(chiffon)과 레이스(lace)의 사용, 털장식 등의 그 시대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으므로, 제작 구조상의 패턴(pattern), 소재, 바느질법, 장식기법, 기능적 요소로 나누어 의상의 제작법을 살펴보려 한다. 패턴 및 그에 따른 바느질법은 Janet Arnold가 쓴 「Patterns of Fashion 1, 2」에 기초를 두었고, 그 외에 제작 상에 관련된 소재와 그 시대의 특징적인 바느질법 및 장식기법은 그와 관련된 문헌과 빅토리아 시대(Victoria era)의 3점의 유물과 선행된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I, II)」에서 제작된 3벌의 의상[데이 드레스(Day Dress)(C1839~1845), 디너 드레스(Dinner Dress)(C1882~1883), 데이 드레스(C1895)]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1910년대 의상

남성복이 단순하고 기능적인 현대 의상으로 일찍 정립되었던 것에 비해, 여성복의 현대화는 1908년 부터 그 기초가 세워졌고²⁾ 1914년의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정립되었다. 따라서 1890년대를 지배한 세기말적인 퇴폐미와 에로티시즘의 잔존이 지배하던 1900년대와는 다른 1910년대 초기 4~5년은 대단히 패션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³⁾ 현대 여성 복식의 기틀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첫째,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섬유개발과 직물가공법과 염색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류 소재가 생산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 자동차 시대

의 도래, 스포츠 활동의 확대 등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작업을 하기에 편리한 복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둘째, 새로운 스타일의 추구로 동양과 고대 복식에의 흥미이다. 1905년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1909년 그리스식 페프로스(peplos)를 입고 자유롭고 독창적인 춤을 선보인 이사도라 덩컨과 1909년 디아길레프(Diaghilev)의 러시아 발레단등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의복에 적용된 예로는 야수파 등이 사용하는 강렬한 색채의 도입, 기모노 스타일, 그리스 로마식 튜닉 스타일 등이 있다. 셋째, 폴 푸와레(Paul Poiret)의 혁명이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포착하여 의상으로 만들어 냈다.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몇 세기 동안이나 걸쳐 착용되어 오던 코르셋(corset)과 페티코트(petticoat)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고, 최초로 현대적인 스트레이트 라인(straight line) 드레스를 소개하였다.⁴⁾ 여성의 몸을 인위적인 왜곡에서 해방하고 그 자연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생기고 다이나믹한 현대 모드에의 길을 대담하게 개척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 개념에 어긋나는 호블 스타일의 의상을 발표하였다.⁵⁾ 그러나 「걸기 힘들다」는 비판으로 앞이나 옆에 슬릿 slit)을 넣어 훨씬 기능적이고 섹시(sexy)한 룩(look)을 만들어, 좁은 스커트 아래로 노출된 다리는 이 당시 강조점이 되었다. 따라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인 팩그 탑 스커트가 매우 유행하였으며, 이는 엉덩이 둘레에 드레이프된 주름으로 스커트 위가 풍성하고, 다리 위를 감싸며 아래폭이 좁아 입기는 매우 어려웠으나, 날씬한 엉덩이와 긴 다리를 가진 여성은 매우 멋지게 보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와레는 동양적 요소를 의상에 적극 반영하여, 강렬한 색채를 채택하고, 하렘(harem) 스타일·기모노 스타일·소매없는 튜닉

2) Elizabeth Ewing,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Barnes & Noble Books, New Jersey, 1986, p.62.

3) David Bond,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Guinness Superlatives Limited, 1981, p. 32.

4) Anne Stegemeyer, 「Who's Who in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88, p.162.

5) 김문숙 역, 「복식디자인(Secrets of the Couturiers)」 서울, 경춘사, 1989, p.27.

· 터번(turban) 등을 새롭게 등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1910년대 전반의 의상 경향과는 달리, 현대 복식의 주된 특징은 191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 1차 세계 대전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발달로 인해 모든 연령층과 모든 계층의 여성들은 더 단순하고, 더 실질적인 스타일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조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을 1910년대의 의상으로 하였으며 재생을 통한 재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Ⅲ. 제작 기획

의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과거 서양복식에 대한 실물 제작 차원의 분석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선행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1990년 5월 김문숙 교수 지도하에 서울여자 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발족된 의상 연구회에서는 과거 의상의 실물 제작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4벌의 의상을 제작⁶⁾하였고 2편의 논문⁷⁾을 발표하였으며, 1994년에서 1995년에 걸쳐 1913~14년의 애프터눈 드레스를 제작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본 논문은 제작 과정상의 실물 자료를 근거로 애프터눈 드레스의 설계 및 의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 것이며, 그러한 시도에 있어 제작의 기획 및 실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 제작의 단계를 수록해 보고자 한다.

1. 선정된 드레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상의 시대적 배경, 그 시대의 의상의 특징을 알아

보고,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 제작상의 스타일, 색상, 소재, 바느질법, 사용된 장식의 기법과 기능적 특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2. 드레스가 이루고 있는 패턴의 형태와 수를 파악한 후, 제작되어 있는 1" 눈금종이 위에 Janet Arnold가 쓴 「Pattern of Fashion 2」에서 선정된 1/8"로 축소되어 있는 패턴을 본 크기를 그대로 환원시킨다. 이와 동시에 드레스에 사용될 소재 구입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한다.

3. 환원시킨 패턴의 치수 및 각 패턴간의 조합 확인, 바느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머슬린(muslin)으로 예비 제작을 하여 본다. 또한 예비 제작 결과 소재의 필요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4. 재단 과정과 바느질 과정을 거쳐,

5. 정리 단계로는, 본 논문에 수록되어지지 않은 페티코트(petticoat) 등을 드레스의 스타일에 맞추도록 제작한다. 이 과정은 본 연구를 함에 있어 부수적인 부분이지만 제작된 드레스의 실루엣(silhouette)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밖에 제작상의 문제점으로는 튜닉 형태의 레이스 소재의 구입과정에서 실물 레이스 문양을 정확히 알 수 없고, 1910년대 패션 흐름과 일치하는 소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Ⅳ. 제작 및 실제

1. 스타일의 분석

19131~14년 애프터눈 드레스⁸⁾ (그림 1 참조)

6) 18개월간 5명의 연구원이 데이 드레스(C1895)를, 12개월간 7명의 연구원이 데이 드레스(C1839~1845)를, 12개월간 4명의 연구원이 디너 드레스(C1882~1883)를 제작하였다.

7) 김문숙, 오현남, "실물 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I)-후기 빅토리언 드레스(Victorian Dress)의 설계 및 의상 분석", 서울여자 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논문집, 1993(4).

김문숙 외, "실물 제작을 통한 의상 연구(II)-빅토리언 드레스의 설계 및 의상 분석", 복식, 한국복식학회, 1994, 5.

8) 오후에 입는 의복으로 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면 된다. 이브닝 드레스와 같은 특별한 격식은 필요없다. 소재는 실크가 많고 액세서리도 옷에 적합한 격조있는 것을 쓴다. 오후의 연회나 결혼식 참석 등에 사용한다.

는 1910년 부터 시작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보여지고 있으나(그림 2 참조), 풍성한 가슴 아래 부분과 엉덩이 부분의 보우(bow)로 인해 전 시대의 S 자형 실루엣이 약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2)



(그림 3)

이 드레스는 세겍의 바디스(bodice)와 레이스, 2겹의 스커트와 레이스-오버 스커트(lace-over skirt)가 허리 위에서 연결된 원피스형이다. 바디스의 형태는 몸에 밀착되도록 재단되어 있고 본(bone)을 댄 언더바디스(underbodice), 허리 부분에 약간의 여유분을 준 오버바디스(overbodice), 레이스와 같이 재단되어 허리에 주름을 잡아 가슴 아래 부분을 많이 부풀린 돌먼 소매(dolman sleeve)로 된 마자르 바디스(magyar bodice)⁹⁾로 되어 있다. 스커트 부분은 고어(gore) 형태로 된 언더스커트, 앞이 랩(lap)된 페그탑(peg-top) 형태의 오버스커트(overskirt), 허리선에 많은 주름이 들어간 레이스-오버 스커트(lace overskirt)로 형성되었다. (표 1 참조)

바디스의 레이스나 레이스 오버 스커트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복식을 모방한 튜닉 형태이고 새쉬(sash)나 마자르 바디스는 일본의 기모노에서 변형된 형태로서, 이 시대의 고대 복식과 동양 복식의 흥미를 찾아 볼 수 있다. 페그 탑 스커트는 호블 스커트와 함께 유행하던 것으로 불규칙한 턱을 잡아 허리에서 부터 무릎 위까지 부풀리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이 드레스는 애프터눈 드레스의 특징을 살려 스커트 뒤 쪽이 늘어지는 작은 트레인(train)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2. 색상과 소재의 분석

몸에 밀착되는 피치색(peach) 언더 바디스를 제외하고, 1913~14년 애프터눈 드레스는 전체적으로 한가지 색상인 아이보리색(ivory)으로 되어 있으며, 장식에는 브라운색(brown) 스킨크(skunk) 털을 사용하고 있다. 소재는 비교적 다양하여, 주 소재로는 언더 바디스와 언더 스커트, 새쉬와 보

9) Magyar는 영어 발음은 '마기요', 한어 발음은 '마자르'로서, 이는 헝가리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민족 이름이다. Magyar bodice(마지르 바디스)는 헝가리인들의 민속복에 나타난 의상으로, 어깨선과, 소매와 몸판의 연결선이 없는 여유있는 바디스로 추정된다.

우(bow)에 사용한 새틴(satin), 오버 바디스 아래 부분과 패그탑 스커트에 사용한 실크(silk), 마자르 바디스와 오버 바디스 위, 패그탑 스커트의 앞가리개 용도로 사용된 쉬폰(chiffon), 튜닉 형태를 이루는 레이스(lace)가 있다. 브라운색 털장식과 함께 다양한 소재의 사용은 한가지 색상에 따른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그 시대의 화려함을 전달하고자 한 듯 하다.

3. 패턴과 바느질 법의 분석

겹겹이 입은 애프터눈 드레스는 매우 복잡한 패턴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표 1 참조). 종래의 형태인 몸에 밀착되는 언더바디스가 10 판으로, 약간 여유있는 오버바디스가 위쪽의 2겹 쉬폰이 3판, 아래쪽 실크 3판으로 구성되었고, 힘을 주기 위해서 망사와 같이 재단되는 마자르 바디스는 2판으로 되어 있다. 본(bone)이 부착되는 언더바디스는 코르셋이 사라져 가는 이 시대의 헐렁한 의상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스커트는 전 시대와 비슷한 고어 형태인 언더 스커트 6판과 허리 부분과 앞 중심부분의 불규칙한 턱으로 드레이프 되는 오버 스커트 2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선에서 접혀 두겹으로 재단되어 10개의 1/2" 주름을 잡은 쉬폰은 겹쳐진 오버 스커트의 트인 앞부분을 가려 준다. 겉으로 보이는 바디스 일수록 단순하고 몸에 밀착되지 않는 풍성한 디자인이므로 패턴의 수가 작고 단순한데 비해 몸에 밀착되는 전 시대의 잔존인 언더 바디스는 복잡하여 패턴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겹의 바디스와 스커트가 원피스로 조합되므로 그 순서와 방법이 중요하다. 이에 기본적인 드레스 조합 바느질 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는 바디스 조합 과정으로 각 솔기를 연결하고 본을 부착하여 언더 바디스를 완성하고,

실크 바디스 위에 두겹의 아이보리 쉬폰을 부착한다. 망사와 쉬폰의 마자르 바디스를 조합하여, 입혀 놓은 상태에서 두겹(오버, 마자르 바디스)을 맞춰 언더바디스 허리선 부분에 놓고 박은 다음 그 위로 레이스를 고정한다.

두번째 단계는 언더 스커트, 실크 스커트를 각각 완성하여 레이스 오버 스커트와 함께 조합한다.

세번째 단계는 바디스와 스커트 부분이 조합되어 드레스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마자르 바디스와 약 1/2" 겹치도록 언더바디스 위에 올려 놓은 후 평평하게 박아 넣어 완성한다. 바디스와는 2"~3", 스커트와는 1" 겹치도록 고정되는 새쉬와 보우는 여러 겹의 바디스와 스커트가 조합된 복잡한 허리부분을 감춰준다.

얇은 옷감이 사용되고 패턴의 형태가 서로 상이한 것들이 한 부분에서 조합되므로, 선행된 연구에서 나타난 안감과 겉감을 함께 박는 바느질법은 마자르 바디스의 쉬폰과 망사에서만 사용되고, 그 밖에는 각각 바느질되고 리본테이프 등으로 마무리 된다.

4. 장식 기법의 분석

1913~14년 애프터 눈 드레스의 장식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여름까지도 성행한 털장식이다. 1910년대 당시, 모피는 가벼워졌고, 작업하기가 수월해졌으며, 값싼 모피의 이용으로 사치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¹⁰⁾ V자형의 목선과 소매 끝, 램프 스커트 끝선을 따라 장식되었는데 이것은 끝선에 사용하여 정리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하며 위와 아래의 털의 굵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균형을 잃지 않게 하였다. 털과 함께 목 부분과 손목 부분에 물방울 두늬와 피코 가장자리(picot border)가 있는 넷(net)이 사용되었다. 손목 부분의 잠금 장치에 단추와 후프(hoop)

10) Fran 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Ltd. 1987, p.400.

가 사용되었는데, 이 스타일은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오히려 화려한 편이나 그 당시에는 매우 간단하고 짧아 보이는 형태였다. 뒤는 큰 보우로 장식했다(그림 4 참조). 1914년 4월 퀸(Queen) 지에서는 술장식이 있는 '거대한' 크기의 보우가 매우 유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하얀 가운데에 비비드 톤(vivid tone)의 보우를 달거나, 전체가 브라이트 톤(bright tone)인 것에 검정색 보우를 달았고, 커다란 고리의 끝이 위로는 양쪽 어깨까지 오는 한편 아래는 허리아래까지 오기도 했다고 한다.¹¹⁾



(그림 4)

마자르 바디스의 뒷중심선에는 재봉틀 바느질로 연결하지 않고 과고팅 스티치(fogotting stitch)로 연결하여 목선의 장식과 보우 간에 연결선을 만들어 주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 바이어스로 재단된, 넓은 세쉬는 등양적 요소로 본 허리선보다 높은 하이 웨이스트를 형성하게 한다. 마자르 바디스안으로 비쳐 보이는 위쪽 진동놀래, 목선의 레이스 끝, 튜닉 형태의 레이스 끝에 피코에지(picot edge)가 사용된다. 이러한 세심하고

화려한 장식들은 '애프터눈'이라는 용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

5. 구조적 기능의 분석

이 드레스는 선행 제작된 3벌의 빅토리아 의상과는 다르게 특이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여밈으로, 위 바디스는 앞 여밈(그림 5 참조), 상체에 달린 레이스는 오른쪽 옆 여밈(그림 6 참조), 세쉬와 연결된 스커트는 뒤 여밈(그림 7 참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디자인상 마자르 바디스는 앞 여밈이고, 스커트는 뒤 여밈으로 재단된 것을 원피스 형태로 만들려고 한 시도의 결과라고 본다. 이 여밈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잠금 형태를 가진다. 언더바디스 앞 여밈에 8쌍, 오버바디스 앞 여밈에 9쌍, 마자르 바디스 목선의 고정에 5쌍, 소매에 단추와 후프(hoop)가 양쪽에 8쌍, 상체 레이스를 바디스에 고정하는 데 9쌍, 스커트의 왼쪽을 바디스에 고정하는 데 7쌍, 스커트 뒤 여밈 중 오버스커트와 언더스커트에 6쌍, 레이스-오버 스커트에 4쌍으로 잠금 장치가 무려 56쌍이나 된다(그림 5, 6, 7 참조).



(그림 5)

11) Janet Arnold, 『Pattern of Fashion 2』, Drama Books Specialists, New York, 1980, p.62.



(그림 6)



(그림 7)

1"와 1/2" 폭의 실크 리본(silk ribbon)은 안단이나 단 처리에 사용되었다(그림 8 참조). 이것은 깨끗하게 단을 정리해 줄 뿐 아니라, 부드러운 소재가 형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케이싱(casing)은 끈을 넣는 통로 기능을 하며, 끈을 잡아당겨 언더 바이스를 몸체에 안정시켜주며, 언더 바디스 위쪽 끝의 단을 정리해 준다. (그림 8 참조)

그 밖에 쉬폰 소재의 언더-암 피스(under-arm

piece)는 어깨점에서 1"안으로 들어 간 곳에서 부터 진동둘레에 돌려져 바느질 되며, 이것은 때었다 붙였다 하는 땀받이 역할로, 겨드랑이의 분비물로부터 실크 소재인 본 드레스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8)

V. 결 론

1910년대 의상은 과학의 발달, 사회문화의 변화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현대 패션으로 자리매김하는 과도기적 성격이 잘 표출되고 있는 1913~14년 애프터눈 드레스의 실제 제작을 통해 스타일, 색상과 소재, 패턴과 바느질법, 장식기법과 구조적 기능의 세밀한 부분을 연구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타일 :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나 블루종(blouson) 스타일의 바디스루 인해 S자형 실루엣이 잔존해 있다. 겹겹이 입은 이 드레스는 여러 가지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실루엣을 형성한다. 4점의 바디스와 3점의 스커트가 허리부분에서 복잡하게 조합된 원피스형이다. 스트레이트 실루엣, 기모노 스타일의 바디스, 패그탑 스커트, 덧입혀진 튜릭 형태의 레이스

오버스커트 등에서는 1910년대 의상 특성을 엿볼 수 있으나, S자형 실루엣의 잔존, 코르셋 형태의 언더바디스, 패그탑 스커트 안쪽에 남아있는 고어 스커트 등의 사용은 혼돈된 과도기적 성격을 포착할 수 있다.

2) 색상과 소재 : 주조색인 아이보리색과 강조색인 브라운색으로 처리된 것에 비해 여러가지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주소재가 새틴, 실크, 쉬폰, 레이스의 4가지이며, 그밖에 많은 부소재 및 부자재가 쓰인다. 소재가 많이 쓰인 것은 색상의 단조로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소재가 다양해 졌기 때문이고, 비치는 소재를 선호하는 시기이므로, 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겹겹이 입으므로 생겨난 현상이다.

3) 패턴과 바느질법 : 여러 겹의 바디스와 스커트가 조합되어 패턴의 수가 많고 바느질법도 복잡하다. 단순한 외형과 전시대의 잔존인 내부형은 단순해지는데 현대화의 흐름을 패턴으로써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패턴을 각각 조합하여야 함으로 손바느질이 많이 사용된다.

4) 장식 기법 : 스타일의 단순함을 벗어나기 위해 목선과 소매단에 피코 가장자리가 있는 넷과 스텝크 털이 장식으로 쓰이며 리듬과 비례에 맞추기 위해 랩된 패그탑 스커트에 단선에 좀 더 두꺼운 스텝크 털이 둘러진다. 동양적 요소인 새쉬와 보우도 두드러진 장식이다. 스커트의 끝리는 트레인과 함께 화려한 장식은 애프터눈 드레스의 특징을 드러내 준다.

5) 구조적 특징 : 원피스형 드레스에 앞여밈과 뒤여밈, 옆여밈이 공존하여, 특이한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잠금장치도 복잡한 것이 이 드레스의 큰 특징이다. 부자재로 쓰인 리본 테이프와 캐이싱은 시접을 정리해 줄 뿐 아니라 의상의 형태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13~14년 애프터눈 드레스는 1910년대의 패션의 특징과 그 이전 시대의 의상의 잔존을 동시에 지닌 과도기적 성격

을 지니고 있고, 소재, 구조, 장식 면에서 애프터눈 드레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는 사진 자료를 통해 실루엣을 공부한 것과는 다르게 제작 방법을 익히고 그 구조적 형태를 습득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그 시대를 연구할 수 있었다.

실물제작을 통한 연구(I, II)와 본 연구가 현대 패션 디자인에 영감의 출처로 적용되어질 것이라 여기고, 차후에는 보다 접근된 소재 선택이 필요하며, 많은 투자가 요청된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의장연구회에서는 1902~3년 데이 드레스를 연구 중에 있으며 빅토리아 의상 3벌, 스타일의 흐름을 단순히 실루엣의 변화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작 상에 발견된 요소, 패턴, 바느질법, 장식기법과 구조상의 특징의 변화와 공통성을 분석하고, 각 드레스 간의 용도 또한 분석할 수 있어 보다 발전된 연구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on Dress Through Rehabilitation - The Analsis of Design of 1913~14 Afternoon Dress -

As the current stage of the fashion begins to follow the styles of the past, the study on the past costume is getting more importance, and as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the accurately approached study through the rehabilitation of the past costume is more needed than the simple re-arrangement of the historical documents. By this methodology, this study can be positioned as a re-creation activ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Style : The S-line silhouette remains because of the straight silhouette or the blossom style bodice. This dress has various types of silhouette, but generally it forms one silhouette,

and is one-piece.

2) Color and Material : The material varies while the color is divided as the main color of ivory and the stress color of brown. This shows not only that the material has been varied, but also that they tried to reduce the monotony.

3) Pattern and Sewing : The simple external figure and the internal figure inherited from the previous stage typically shows the movement to the simplicity of the contemporary, and the number of patterns is plenty and the sewing method is also comp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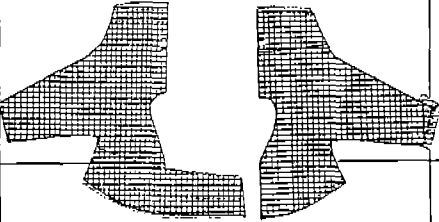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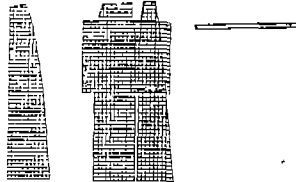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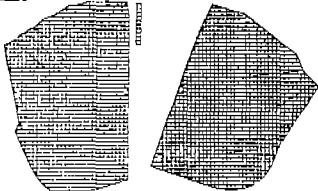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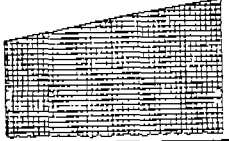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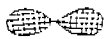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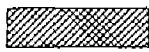
4) Detail : To overcome the simplicity of the style, and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fternoon dress, the skunk fur, the net, the sash,

and the bow are used.

5) Structural Characteristics : The front opening, the back opening, and the side opening coexists in one-pieced dress, and this forms unique structure and complex fastening device. The ribbon tape and casing not only finish the seam, but also fix the shape of the dress.

Synthetically, the 1913~14 afternoon dress ha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stag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of 1910s and the remna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costume style, an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fternoon dress well in terms of the material, the structure, and the detail.

<표 1> 부위별에 따른 스타일, 패턴, 색상과 소재, 장식 및 기능 비교표

부위별	스타일	패턴	패턴수	색상	소재	장식	기능	
전체특징	스토레이트/S자형			아이보리	실크	보우, 새쉬	혹아이	
	언더	몸에 밀착되는 형태		11	피치	새틴		캐이싱 실크 테이프
바디	오버	약간의 여유있는 형태		10	아이보리	실크 쉬폰	레이스밴드	언더암피스
	마자르	블루종 스타일 돌린소매		4	아이보리 브라운	쉬폰 망사	몰방을 무늬와 피코가 있는 넷, 스텝크털, 파고팅	단추 후프
레이스버			3	아이보리	레이스			
스커트	언더	고어드 스커트		6	아이보리	새틴	폴리츠	실크 테이프
	오버	램된 패그람 스커트		2	아이보리 브라운	실크	스텝크털	
레이스오버	튜닉형태의 개더스커트		2	아이보리	레이스			
기타	새쉬	본		1	아이보리	새틴		
	보우	본		4				
	본	본		1	흰색	오긴자		보우의 안감